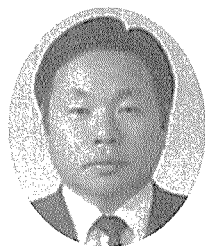


## 평양 방문기



김철중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부회장

나는 지난 5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북한의 의료협력센터 기공식에 참여하고 아울러서 북한의 핵의학 이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다.

핵의학분야에서 이명철 RI협회부회장(세계핵의학회 회장)과 나, 그리고 “나눔인터내셔널” 측 관계자 4명으로 구성된 우리일행은 중국심양에서 오후 3시 고려항공 JS 156편으로 출발하여 오후 4시 45분에 평양 순안비행장에 도착하였다.

북측의 배려로 VIP 라운지를 통해 입국장을 빠져나온 우리 일행은 마중나온 민족화해협의회 최인철 참사와 김성철 참사의 환대를 받았다.

봉고차로 순안 비행장을 나와 시내로 가는 중 최인철 참사는 평양면적이 서울의 4배정도 되며, 인구는 110만이라고 평양을 소개했다.

우리일행을 실은 봉고차는 순안구역과 금

수산기념궁전,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과대학, 김일성경기장을 차례로 지나 마침 만수대 김일성동상 앞에 도착하였다. 동상정면에는 대동강물이 흐르고, 우측에는 그 유명한 옥류관이 자리잡고 있었다. 우리일행은 간단한 사진촬영을 마치고, 4일간 묵을 숙소인 국제양각도 호텔로 이동하였다.

우리가 호텔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6시경이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선글라스를 착용한 여러명의 북한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보니 심양공항에서도 선글라스맨들을 쉽게 접했던 기억이 난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북쪽에서의 선글라스는 부와 권력의 상징이라한다.

그날 저녁식사는 “나눔인터내셔널” 측 직원의 초대로 호텔 2층 한정식식당에서 했다. 식당안에는 백두산정일봉 그림이 아주 웅장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정일봉은 김일성생가

가 있는 곳이며 김일성주석의 무명장수를 상징한 18마리의 학도 함께 있었다.

다음날 29일, 일찌감치 아침식사를 마친 우리일행은 김일성생가 만수대를 둘러보고 곧바로 만경대에 올랐다. 만경대에서 내려다보이는 대동강은 너무도 평온해 보였다. 북측안내원에 의하면 이 대동강 물줄기는 총 490km에 이른다고 한다. 만경대에 관광객을 상대로 한 조그마한 가게가 하나 눈에 띄었다. 까까오라는 아이스크림은 참 독특한 맛이였다.

그날 점심은 원형식당이라는 곳에서 동태 매운탕을 먹었는데 이곳이 조선음식전국협회에서 지정한 모범1호 점포라고 점원은 우쭐대며 자랑하였다. 그러나 내가 느껴진 음식맛은 남한의 매운탕 맛 보단 못한 것 같았다.



〈최경태 내분비연구소 앞, 우측에서 두번째 필자, 좌측에서 세번째 이명철 교수〉

식사를 마치고 마침내 우리의 방북목적인 평양의료협력센터 신축장소로 이동하였다. 동 센터가 위치한 장소에는 최경태 내분비연구소가 같이 있었다. 동센터 신축장소에는 이미 한국에서 보낸 건축자재들로 쌓여 있었으며 기초공사가 한참 진행중 이었다.

동 센터는 한국에서 보내오는 의료기기를 1차 시험가동한 후 운영되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내과의사이면서 의학협회 부회장인 김경애라는 분이 공사를 총 지휘하고 있었다.

우리일행은 그들의 의학현황을 조금 더 파악하기 위하여 1,000개의 침상을 갖추어 평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하는 조선적십자병원을 방문하였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방사선학회 부회장 이면서 동 병원 방사선과 과장으로 있는 김철이라는 분의 친절한 안내를 받았다. 곧 바로 나와 이명철교수는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동위원소사용실로 발길을 옮겨갔다. 거기에서 가장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1991년도에 도입된 지멘스사 감마카메라였다. 그러나 감마카메라의 주요 주변기기인 컴퓨터등은 찾아 볼 수 없었다. Thyrode uptake도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가동은 되지 않고 있었다. Tc-99m선원을 추출하기 위해 중국원자력연구소에서 500mCi 제너레이터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수입한 동 제너레이터가 US\$900라고 하면서 항공운임까지 합하여 그렇다고 했다.

Thyrode uptake는 작동되지 않아 갑상선 치료를 어떻게 하는냐는 필자의 질문에 김철 과장은 탄산리듬병합요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었다. 과거 한동안 소련으로부터 방사성동위원소를 공급받았는데 소련체제가 붕괴되면서는 RI공급이 중단되어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어 보였다.

또한 RIA검사를 위한 감마카운터는 있으나, 마찬가지로 현재는 KIT가 공급이 되지 않는 모양인지 INVITRO ROOM을 보지 못하였다.

방사선과에는 치료방사선 동위원소가 함께 있었으며 1984년에 Co-60 4,700Ci를 들여와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었으며, 소련이 붕

괴되기 전에는 각도 병원 및 시립 병원에 모두 동위원소를 이용하였지만 RI가 공급 중단된 이후에는 전국병원 동위원소실은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방사선과(동위원소 담당) 의사가 20~30명 정도가 된다고 하지만 현재는 조선 적십자병원만 유일하게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듯 했다.

이날 적십자병원 방문은 나의 많은 궁금증을 해소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우리현실에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무거운 과제들을 느끼면서 발길을 고려호텔로 옮겼다.

이날 저녁은 고려호텔 부속식당의 단고기(한국의 보양탕) 정식이었다. 호텔에서 단고기라니 참 의외였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고려호텔 스카이라운지로 이동하였다. 차를 마시며 평양시내 야경을 볼 심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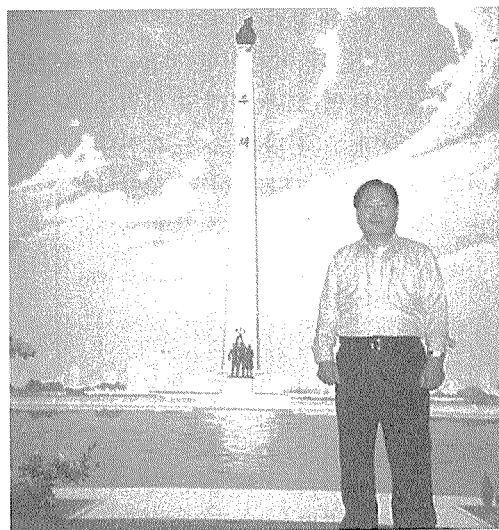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의 기대는 금방 무너지고 말았다. 평양의 밤거리는 자동차 불빛마저도 거의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째름한 밤이었다. 스카이라운지가 저녁만큼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듯 했다.

30일. 숙소인 양각도 호텔 앞에는 9홀 골프장이 있었는데 우리일행은 아침 5시 30분에 이 골프장을 이용했다. 9홀 모두 짧은 홀이었으며, 그중 제일 긴 홀이 120야드, 제일 짧은 홀이 70야드였다.

green fee는 골프채 대여료 및 캐디료를 포함하여 26유로 정도 하였다.

우리일행은 아침식사 후 주체탑으로 이동했다. 1982년 4월 15일 건립된 주체탑은 2,250개의 대리석 주춧돌에 높이는 170미터로 그 웅장함을 뽐내고 있었다. 이 탑을 세우는데 세계 각국의 사회주의적 성향의 단체에서 건립기금을 헌납하였다고 한다. 헌납자들

명단을 동판에 새겨 벽에 부쳐놓은 것이 참으로 이색적이었다. 탑안의 엘리베이터는 8층 짜리 특수 제작한 것으로 150m정도 올라가니 평양시내가 한눈에 보였다. 특히 엘리베이터탑승 입구에는 VIP 대기자를 배려하여 초호화 Deluxe 의자가 놓여 있었다. VIP실에 안내받아 들어가 보니 벽에는 주체탑이 그려져 있고, 주체탑 영상물을 보여줄 수 있는 TV가 있었다. 아무튼 말로만 들었던 그들의 주체탑의 홍보는 대단하였다.



〈주체탑 앞에서 필자〉

이날 점심은 대동강 강변을 끼고 있어 전망이 아주 좋은 옥류관에서 했다. 이곳 옥류관 냉면판매는 하루평균 10,000여 그릇에 이른다고 한다. 옥류관 안에는 손님들로 빈 자리 하나 없이 빼곡히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가히 그 명성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개선문으로 이동하였다. 차창밖으로 보여지는 시민들은 아주 바쁘게 움직이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거리에 삼삼오오 모여앉아 담소를 나누고

아주 한가로운 모습이였다. 버스타승객이 간간히 보일뿐 유동인구의 긴 행렬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일감이 없어서 인가?

그 사이 차는 개선문에 도착했다. 개선문은 김일성주석이 14세(1925~1945)에 만경대를 출발해서 20년만에 평양에 개선한 문이라고 한다. 벽에는 필자가 1950년도 초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기억이 있는 장백산 줄기줄기~노래가 새겨져 있었다.


감회에 젖어 있는 사이에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다. 우리 일행은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평양 중구역 련화 2동에 있는 민족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여기에는 민족화해협의회 상임위원인 김철수 상임위원이 참석하였고, 초총련 부의장인 박희도님도 우연찮게 동석하게 되었다. 80세의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80평생 조국을 위해서 봉사하신 분이라고 소개 받았다. 우리는 여러 이야기들은 허심탄회하게 나누었다. 평양에는 TV방송 3사가 있다고 한다. 중앙TV, 만수대TV, 교육문화TV가 그것이다. 그런데, 중앙TV는 매일 방영하는데 만수대TV는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만 방영하고, 교육방송TV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만 방영한다고 한다.

북한의 물가는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하였다. 양각도호텔 요금도 1인실이 110유로, 2인 1실 120유로였다. 호텔상점에 가격들은 모두 유로로 표기되어 있었으며, 달러나 중국 원도 모두 사용하고 있었다.

3일 동안 평양시내를 눈여겨 보았지만 은행은 눈에 띄지 않았다. 또 특이했던 것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고층 아파트에 주차장 시설이 없다는 거였다. 민화협 직원에게 물어보니 평양에 차가 많으면 공해 문제로 인민들에게 자동차 사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리고 우리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서로 명함을 주고 받으면서 인사하는 것이 관례이나 평양사람들은 명함을 소지하지 않는 모양이다. 소개할 때 그저 이름만 말할 뿐이었다. 이후 3박4일 머무는 동안에도 나는 여러 사람들을 만났지만, 명함 한 장 받지 못한 아쉬움을 남겨야 했다. 또 한가지 흥미 있었던 것이 내가 만났던 남성들 모두가 공교롭게도 이름에 “철”자를 사용하였다. 최인철 참사, 김성철 참사, 류혁철 참사, 주철수 참사, 김철수 상무위원, 김철 과장 등... 내가 이들에게 “철”자를 선호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지를 물었더니 단지 “철”자가 강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이름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것 한가지 더 소개하자면 내가 방북기간동안 “김”씨성을 가진 여종업원 명찰을 여러명 볼 수가 있었는데 이들 모두가 전주김씨란다. 김일성주석이 전주김씨이다.

31일. 평양에 머문 마지막 날이었다. 짧은 방문기간이어서 여러 가지로 너무 아쉬웠지만, 우리 일행은 8시10분 JS161편으로 북경에 가기 위해서 이른 아침을 간단한 찜만두로 식사를 했다. 그쪽 용어로는 남세라고 한다. 만두는 물에 끓여서 먹는 조그마한 물만두를 말하며, 증기에 찌는 것이 남세이다. 우리말의 이질감을 뒤로 한 채 3박 4일간의 방북 일정이 이렇게 마무리 되었다. 이번 평양방문으로 얻어진 성과라고 한다면, 북한에도 핵의학(동위원소병원)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과 RI를 전혀 생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런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최근 615남북 공동화해무드조성에 때를 같이하고, 또한 인도적 차원에서 북쪽에 의학용 방사성동위원소를 공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해외 탐방